

“국민의당 간판으로 선거 치를수 없다” 집단탈당 구체화

국민의당 분당 초읽기...지역 정치권 움직임

국민의당이 통합 신당파와 통합 반대파인 '민주평화당'으로 분당(分黨)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광역의원들은 국민의당 집단 탈당을 예고하는 등 향후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는 반면,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서 향후 거취를 심각히 고민중이다.

당 통합에 참여하거나 국민의당 탈당 뒤 민주평화당 창당에 동참하느냐, 탈당 후 무소속으로 지방선거를 치르느냐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색깔이 달라지는 '순간의 선택'이 지방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시당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오는 2월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이틀 후인 같은 달 6일에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 간담회는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이며, 전체 9명의 의원 중

광주시의원 내달 6일 간담회 전남도의원 5일 집단탈당 민평당 합류나 무소속이나 선거 입지자들도 선택 고심

해외출장을 가는 1명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할 예정이다.

통합 반대파들은 일단 민주평화당 창당 작업에 힘을 몰아주면서 국민의당 탈당 행렬을 이어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광주의 경우 중재파로 분류되는 국회의원이나 다수 있어 지역 정치인들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재파의 중재안을 안철수 대표가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중재파 국회의원들의 향후 거취 결정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이합집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통합파에 합류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민주평화당 합류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명 중 광산구를 지역구로 둔 3명 가량은 현재 중재파로 분류되고 있는 김동철(광산갑) 원대표와 권은희(광산을) 의원 때문에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부 시의원의 경우 탈당 후 더불어민주당 입당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재파 국회의원들의 거취에 따라 이들 시의원들의 향후 진로도 결정될 것이라는 정가의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민의당 소속 광주시의회 원내대표인 김민중(광산4) 의원은 28일 “통합 반대파에 대해서는 지역 정치인들 대다수가 뜻을 같이 하지만 이후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2월 4일로 예정된 국민의당 전당대회와 5일 열리는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창당결의대회를 지켜보면서 탈당을 하거나 향후 행선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다음달 5일 집단 탈당을 예고하는 등 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집단탈당 움직임도 구체화되

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 26일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당적 등 진로와 선거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국회의원으로는 박지현 전 대표, 정인화 전남도당 위원장, 박준영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당에 남아서 지방선거를 치르기 어렵다고 보고 탈당 후 가칭 민주평화당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탈당 시기는 2월 4일 전당대회 다음 날로 정했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속 도의원 대부분이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원 57명 중 국민의당 소속은 24명이다.

전남도의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장일 의원은 “당 분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호남 민심과 정체성에 반하는 바른정당과 통합에 지역민이 표를 주지는 않으리라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서는 전남에서 국민의당 간판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밀양 문화체육회관을 방문, 유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취임후 첫 장·차관 한자리 모은다

내일 쏘부처 워크숍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한다. 올해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전(全) 부처와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가상화폐 정책 논란처럼 주요 국정방향을 놓고 부처 간에 혼선을 빚거나 엇박자를 연출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또 청년고용처럼 유관부처의 정책적 의지를 다독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갖는다.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주재로 장·차관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이 12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림픽 개막 전 막바지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남북의 선발대가 각각 방북·방남하고 북한의 여자 아이스하키팀이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소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한 선수들의 스키 공동훈련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다음 달 4일로 결정된 북한 금강산 합동문화공연과 다음 달 8·11일에 열린 예정인 북한 삼지연 관현악단의 강릉 아트센터와 서울 국립극장 공연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安대표 최소한의 양보도 없어”...국민의당 중립파도 반발

당무위, 반대파 징계안 의결

일부 중진 갈지자 행보 비판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창당추진위원회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당명을 확정하는데 이어 안철수 대표 등 통합 찬성 지도부가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민평당 참여 의원 등 당원 179명의 당원권을 2년 동안 정치하는 내용의 비상장계안을 의결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국민의당이

분당 수순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유보 및 중립 입장을 보여왔던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의 선택이 민주평화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는 물론 통합 신당의 동력 창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단, 중재파 의원들은 창당에 나선 통합 반대파와 징계를 강행한 통합 찬성 진영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전당대회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은 만큼 양측을 설득해보겠다는 것이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통합 반대파가 실

질적 창당을 하고 안 대표도 이날 무더기 징계를 했지만 아직 희망이 남아있다”며 “안 대표가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니 기다려보겠다. 서로 합의한 이뤄진다면 지금까지의 갈등은 수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승용 의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확장을 해도 쉽지 않을 판에 ‘호남당’을 만들고 징계를 통해 분당을 하자는 것이냐”며 “정치를 떠나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재 및 중립파 일부 중진들의 모호한 행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안 대표가 막판 조기 사퇴한다고

해도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대한 정체성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립파로 머물 정치적 명분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일부 중진들이 통합 신당 뒤의 국회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립파 의원들이 이제 결단해야 할 때”라며 “호남 및 시대정신에 걸 맞는 선택을 하지 않고 일신의 영화나, 줄 타기 행보를 보인다면 그동안 지지해줬던 호남 민심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TÉLÉSIS Paris

텔레스یس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스یس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과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전시 다수참여
- 2002~TÉLÉSIS 총괄디렉터 & 브랜드 운영